

서부농수산물시장 ‘쪽파의 수난’

농협공판장 등 횡포에 10년간 10차례 경매장 옮겨

흙먼지 이유 또 이동 민원 제기 저온창고 지으려는 꿈수 지적도 출하농민들 “물러나지 않겠다”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들의 횡포로 쪽파 농민들이 10년 동안 10차례나 경매장을 옮겨다니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정 법인이 자신들의 저온창고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 광주시에 쪽파 경매장을 재차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또다시 쪽파 출하 농민들이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작 광주시는 10년째 대책만 찾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도매시장 입주 법인 중 한 곳인 농협광주공판장 측이 흙먼지가 많이 날려 소비자와 중·도매인들의 불만이 많다는 이유로 채소통과 수산물통 사이에 있는 쪽파 경매장을 옮겨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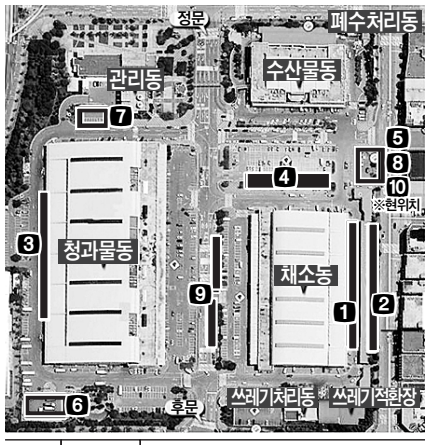
반면 쪽파 경매장을 이용하는 쪽파 출하 농민들은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소속인 농협광주공판장 측과 쪽파 출하 농민들이 대립하는 속사정은 이렇다.

지난 2004년 개설한 도매시장 내 청과물통과 채소통에는 농협광주공판장, 두레청과(주), (주)호남청과 등 3개 법인이 입주해 청과와 채소를 도·소매하고 있다.

개설 당시만 하더라도 쪽파 출하 농민들은 채소통 내에서 물건을 거래했다. 하지만 일부 법인이 산지에서 곧장 뽑아온 채

■ 쪽파경매장 이동 현황



연번	연월	민원내용
1	2004.04	중도매인(3사 공통)
2	2007.08	출하자·소비자·중도매인(3사 공통)
3	2007.10	과일 중도매인(3사 공통)
4	2009.03	농협 채소중도매인 반대
5	2010.01	농협 채소중도매인 반대
6	2013.04	과일 중도매인 반대
7	2013.04	저온저장고출입차량 혼잡
8	2013.05	농협 채소중도매인 반대
9	2013.10	호남두레 법인 및 중도매인 반대
10	2013.10	(최종) 농협 채소중도매인 반대

로 거래되는 쪽파에 묻어 있는 황토로 인한 흙먼지 때문에 피해를 본다며 민원을 제기해 한 차례 자리를 옮겼고, 이후에도 3개 법인 또는 농협광주공판장 소속 채소중도매인의 반대로 10년 동안 10차례나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13년에는 10개월 동안 6차례나 자리를 옮겨다니는 수난을 겪다가 채소통

과 수산물통 사이에 간신히 자리를 잡아 현재까지 경매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협광주공판장 측은 소속 쪽파 중도매인 2명을 사실상 내쫓다시피 폐업시켰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3개 법인이 공동으로 현 부지에 쪽파 경매장을 지어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돌연 농협광주공판장이 발을 빼기도 했다.

청과물통과 채소통에서 거래되는 220 종류의 농산물 중 쪽파만 유일하게 건물 밖에서 거래될 뿐더러 비가림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농협광주공판장 측은 “쪽파 경매장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어 피해가 제일 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다른 법인 등 대다수는 농협광주공판장이 쪽파 농민들을 쫓아내고 농협만을 위한 저온창고를 짓기 위한 꿈수를 지적이다.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이 생산자를 쫓아내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는 공용 도매시장마저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다.

쪽파 출하자 대표인 박재욱(63)씨는 “39년간 전국 도매시장을 돌아다니며 쪽파를 출하했지만 서부농수산물시장만큼 생산자를 몰아내는 곳은 보지 못했다”며 “더 이상은 갈 곳도 없고, 갈 수도 없어 서럽다. 땅에서 생산 안 되는 농산물이 어딴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찾아보고 있다”며 “조만간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들과 만나 광주시민에 사과 방안 논의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통합 위해 털고 가자”

정호용 전 사령관이 전해 발포 명령 인정 등 수위 관건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광주민중항쟁 36주년을 앞두고 5·18 희생자들과 유족 등 광주시민에게 사과를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5·18 당시 발포책임자로 지목된 전 전 대통령이 지난 36년 동안 어떠한 형식으로도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는 사과의 형식과 수위, 발포 명령 인정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들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에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5공 측근들과 만나 5·

18 희생자와 유족,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고영선 전 3군사령관, 김충립 전 수도경비사령부 보안대장 등이 배석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18 당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고, 이후 대통령이 된 사람으로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싶다. 또 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을 위로하고 총체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정호용 전 사령관도 “전 전 대통령도 우리도 모두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털고 갈 부분은 털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는 큰 틀의 공감 이 이뤄졌다”며 “이제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 정리

할 건 정리해야 할 시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배석했던 김충립 전 보안대장도 “사과 표현 수위, 방식에 대한 결정이 나면 조만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보안대장은 26일 광주를 찾아 5·18재단 및 5월 단체 관계자를 만나 “전 전 대통령이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면 받아들여 줄 의향이 있느냐”며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대해 5월 단체 관계자들은 “전 전 대통령이 발포 명령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5·18 묘지를 찾아 영령들에게 사죄하고 희생자와 가족,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



놀이시설 안전 점검

광주 북구청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27일 광주패밀리랜드에서 놀이시설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감사위, 전공노 가입 노조 간부 7명 중징계 결정

4명 경징계·1명 훈계 인사위에 통보키로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과 관련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위원회를 열고 행정자치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시 노조 간부에 대해 징계여부를 했다. 노조위원장 등 운영위원 14명 중 중징계가 요구된 간부는 강승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모 수석부위원장, 공모 사무총장 등 7명이다. 경징계는 한모 지부장 등 4명이다.

1명은 훈계로, 나머지 2명은 장기교육 중이거나 투병 등으로 전공노 가입 투표 등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어 미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노조간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 성실의무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성과상여금제에 대해 대응지침을 내려 보내는 등 무력화 시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행자부가 위원장 등 운영위원 모두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했으나 강도높은 조사 결과 비위의 경중을 따져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수위를 의결한 만큼 내일 중으로 시 인사위원회에 의결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지난달 3일 시노조의 가입 투표 등에 대한 실과장 대책회의장에 난입해 회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때 참여한 일선 구청 노조관계자 12명은 별도 조사를 할 계획이

다”고 덧붙였다.

인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의결내용이 통보되면 통상 6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 있다.

하지만, 노조의 징계간이 인사위원회 회부되는 시기는 운영현 시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시장은 감사결과와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징계 결정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지법 공안부(이문환 부장검사)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고발된 시노조 관계자 대한 조사를 다음달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선거법 위반’ 강운태 전 시장 첫 공판

“산악회 선거운동 목적 아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를 조직하지 않았다.”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산악회) 설립, 운영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이 27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시장의 변호인은 “해당 산악회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다”며 “단 선거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유형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검토한 뒤 다음 절차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를 정확히 밝혀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변호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 또는 부인하기도 했지만 차후 재판에서 구체적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오전 10시30분 다음 재판을 연다.

강 전 시장은 4·13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하고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에 지역구인 남구주민 6000여 명을 초청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7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전 시장은 지난 4·13총선에서 광주 동남갑에 옥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까지집 때문에 열차운행 50분 중단



○전북 임실역에서까지집 때문에 열차에 전기공급이 중단돼 무궁화호 열차가 50분간 운행을 멈춰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코레일의 열차시설 관리가 도마 위.

○27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께 임실군 임실역에서 익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전기공급 중단으로 50분가량 멈춰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30여명이 지각하는 등 불편.

○코레일은 이날 열차 운행중단이 “까지집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승객은 “환승하려는 승객과 지각이 걱정된 사람들이 대체 교통수단을 요구했지만 코레일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불만을 토로.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커피숍 상가 건물 매매(전대정문)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1층 (커피숍 입점)

2층~3층 (고급 룸 8개)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임대완료 정남향 코너자리

□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실투자 3억 8천)

(※ 주인직매) 010-6670-9800 010-7384-7800

근린상가 오피스텔 매매
소액투자 가능, 3천만~2억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물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1,000만, 월세 60만 (용 5천)
□ 매가 1억 1천만

□ 사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 사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 매가 7천 500만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빌 (빌라 원룸)
- 2층 (11평) 은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 마련)

□ 광산구 월계동 참다지구 1층 상가
- (40평) 1층 상가, 미용실, 식당, 프랜차이즈 추천
- 보증금 800만, 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 5천만

□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아파트
- (6평) 2중-전경 좋음, 주변 골목상점,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

010-6834-4800

법률 경매
(특수물건 추천)

□ 전남 장성 삼서
- (토 3492평, 건 5733평) (의료시설)
- 1층~3층 (의료시설) 전 요양병원 운영
- 정성 상태대 입주, 대로변
□ 감정이 48억 8천 6백 → 최저가 34억2천만

□ 동구 동명동
- (토211평, 건608평) (근린시설)
- 1층 (소매점) 2층~6층 (오피스텔) 등
- 동명 교회 복측 인근, 4차선 도로접
□ 감정이 19억 5천 → 최저가 19억 5천

□ 서구 양동
- (토577평, 건424평) (숙박시설)
- 1층 (주차장,기온대) 2층~5층 (숙박시설,40개)
- 광주은행 동측 인근, 약 10M 도로 접
□ 감정이 10억8천 → 최저가 6억8백

□ 전남 순천 조례동
- (토2332평, 건3960평) (근린시설)
- 7층건물 (수영장,사우나,골프장,주택,헬스) 복합 건물
- N백현점 부근, 대단지아파트 단지, 순천C중상지 대면
□ 감정이 140억 → 최저가 64억5천

□ 서구 화정동
- (토 800평, 건 2567평) (동 나이트)
- 광천터미널 뒤편 위치 / 현 나이트 운영중
- (나이트 직영, 타임빌 부근 투자 가치 추천)
□ 감정이 130억 → 최저가 62억

□ 북구 운암동
- (토 66평, 건 194평) (근린시설)
- 1층~5층(사무실) 지하(음식점), 6차선도로 접
□ 감정이 7억 4천 → 최저가 7억 4천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으로분
부동산 경매 관심 분은
가게저렴 할아실분 환영합니다.

010-6832-9700